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가 우리 동네에 옵니다.

우리강산을 푸르게 푸르게 일궈온 유한킴벌리
이제는 당신과 숲이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당신이 직접 가꾸고 함께 호흡하며
생활 속에서 매일 즐길 수 있는 우리 동네 작은 숲으로
당신과 숲의 건강한 공존을 만들어 갑니다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유한킴벌리는 다양한 공존의 숲을 가꾸기 위해 서울의 한강과 남산, 김천과 대전에서 주민과 함께 숲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 프로젝트

연결된 얼굴은 우리입니다

〈네트워크 : 얼굴〉

전시회 : 2016년 12월 5일(월) ~ 12월 30일(금) 평일 09:30~19:30
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

〈2030 청년여성 영상제작 프로젝트 Seoul Women's Walk〉

공동체 상영회 : 2016년 12월 15일(목) 19:00~21:00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연결된 얼굴은 우리입니다>를 함께하며

2016년을 마무리하고 2017년을 준비하며 여성연합은 사회문제 해결의 키워드 중 하나로 '공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트워크 : 얼굴> 전시회와 <2030 청년여성 영상제작 프로젝트 Seoul Women's Walk> 공동체 상영회를 통해 여성연합과 여성미래센터 그리고 이번 '000 프로젝트'에 함께한 서로의 다양성이 공감되고 연결되어 사회적지지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시회 <네트워크 : 얼굴>

네트워크<얼굴> 전시회

애정하는 지인 소중한 지인의 얼굴을 함께 그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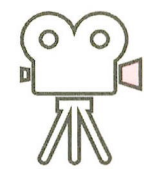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한쪽방향으로 종이를 돌려가며
종이에 이름이 적힌 사람의
'얼굴형-눈썹-눈-코-입-귀-헤어스타일-상반신'
순서대로 그려나가요.
8명이 함께그린을 함께 그린 내 얼굴 네 얼굴, 짜잔!

'얼굴'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많은 정보와 소통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텍스트의 공감과 함께 생생한 공감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상과 사회구조의 혐오와 차별을 드러내어
함께 성평등사회를 만들어가는 '성평등조력자'들이
지난 10월 어느 날, 둥그렇게 둘러 앉아 서로를 그렸습니다.



※ 내 인생에 페미니즘이 필요한 순간 'Dear My Feminism(디.마.페)'
여성연합 **해피빈** 게시판 댓글로 생각과 경험을 기록하고 참여할 수 있어요.



공동체 상영회 2030 청년여성 영상제작 프로젝트 Seoul Women's Walk

청년 여성 감독들이 젠더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와 사회를
영상으로 기록한 다큐멘타리를 함께 보고 여성주의로 2016
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 합니다. '서울
여성의 지금, 여기'를 성평등한 관점에서 영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고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기획한 '2030 청년여성
영상제작 프로젝트 Seoul Women's Walk'의 <여성미래센터
공동체 상영회>는 12편의 기록 중 5편의 영상과 토크로
진행합니다.

<상영 영상 소개>

- 1. 교회언니들** (감독 : 박지원, 성임은)
- 교회와 페미니즘은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한 발칙한 이야기
- 2. 여자답게 싸워라(Fight Like a Girl)** (감독 : 이윤영)
- 싸우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화병난 여성의 '주
짓수' 이야기
- 3. 춤춰브라** (감독 : 이푸른<푸푸>)
- 브라는 억압의 도구? 여성들의 브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시각 이야기
- 4. 터질 줄 몰랐어요** (감독 : 이영림<태권소녀>)
-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나를 지켜도 죄가 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정당일까?
- 5. 환기** (감독 : 천예민)
- 한국사회 혼자 사는 '여자'들의 일상을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바라보다



※ 함께하신 분들께 '여성연합 디.마.페(Dear My Feminism) 캠페인'
로고가 새겨진 텀블러를 드립니다.

